

노인보건

한국의 노인보건관리 현황

근래의 한국사회에서는 노인 문제가 점점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예전처럼 노인인구가 많지 않을 때에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되지 못했고, 또 각 가정에서 노인을 공경하고 봉양하는 미풍양속이 존속돼 있었기 때문에 노인 문제는 밖으로 노출되지 않은 채 각 가정의 문제였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과 생활여건의 개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1995년 통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66만명으로 전 국민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1960년에 2.9%, 1980년 3.8%에 비해 그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2000년에는 7.1%로 늘어날 것으로 推計되고 있어, 노령화 사회(노인인구가 7.0% 이상일 때를 노령화 사회라고 UN에서 규정하고 있다)가 임박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추세로 나아갈 때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861만명으로 늘어나 우리나라 인구의 16.3%를 점하게 되어 15세 미만의 아동인구와 똑같게 된다. 참고로 현재의 아동인구는 노인인구의 4배나 된다.

게다가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깨어져 가고 있다. 점차 핵가족화 되어 노인들이 설 땅을 빼앗기고 있다. 우리들의 부모는 자녀들의 출생, 양육, 교육 그리고 결혼에 이르기까지 부모들의 모든 것을 버렸다. 예전에는 부모의 현신적인 자녀 사랑과 양육 및 교육에 대해 그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를 존경하고 봉양하고 노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한편,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전보다 더 건강한 노인들이 많이 되었다. 따라서 아직은 근로현장을 떠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건강을 유지한 '젊은' 노인들이 타의에 의해서 일터를 떠나야만 한다. 이들은 30~40년 간의 직업활동에서 얻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死藏시켜지고 만다. 따라서 건강한 젊은 노인들이 할 일을 잃고 실의에 빠진 채 나날을 보내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다. 또한 요즘 경제 불황이 닥쳐오면서 명예퇴직, 조기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일터에서 제일 먼저 내몰리는 사람이 年長者들이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

대 경제 부흥기에 조국 근대화

의 일꾼이 되어 오늘의 한국을



김 현 승
(연세의대 내과 교수)

만드는 동안, 그들은 가정에서 나 직장에서 일반하고 자기를

를 알선, 마련해 줘야 복지국

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부예산 중 사회보장 및 복지에 쓰이는 돈이 전 예산의 9.9%인데 반해 미국은 29.6%, 일본 33.8%, 프랑스 45.0% 그리고 호주가 33.8%이다. 진정 우리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또 참다운 복지 국가로 되려면 우선 정부예산 편성에서부터 큰 변화가 있어야겠다.

한국의 노인복지시설 수는 1995년에 146개소이며, 노인복지시설 수용자는 총 8,396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약 0.3%만이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각 가정(자녀들)에서 돌보거

⑦ 현재 노인들의 노후 준비

不在
⑧ 노인은 젊은이에 비해 더 많은 질병을 갖고 있다는 점. 즉 노인 한 분이 만성질환을 평균 3~5가지씩 갖고 있다.

⑨ 정부의 노인 복지정책 부재 등을 들 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환자를 진단하는 전문병원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호주 등에서는 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복지시설(우리의 노인정보다 훨씬 設備의 시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잘 운영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노인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진료비의 상당

현재 독립해 사는 65세 이상 노인 38.2%

고령취업희망자 적절한 일터 마련해 줘야 복지국가

나라에서 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크게 줄고 있는데 1970년에 18.8%에서 1995년에는 10.7%이다. 반면에 핵가족의 수는 점점 늘어나서 1970년에 전 가구의 71.5%에서 1995년에는 79.9%가 핵가족이다. 핵가족이 1970년에 71.5%에서 1995년 79.9%로 늘어난 것이 %차이로는 8.4% 포인트의 증가에 그친 것 같지만 1970년도 핵가족의 주인공은 多産한 자녀들 중의 하나이고 1995년도의 핵가족의 주인공은 2~3명씩 태어난 자녀들 중의 하나이므로 그 내용에

철저히 희생한 훌륭한 분들이 시다. 따라서 그들이 미처 자신의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94년의 조사에 의하면 노인들의 생계부양을 자식이 도와주는 경우는 62.2%이고 노인의 37.9%는 스스로가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세대의 변화를 느끼면서, 요즘은 중년층은 노후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1988년에는 노후준비가 전혀 없는 이가 64.9%였고 연금, 예금, 보험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이가 29.5%였으

나 아니면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그나마 노인복지시설도 내용을 보면, 질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유병률을 살펴보면 고혈압 환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당뇨병, 심장병, 중풍, 그리고 간장질환이다. 이들은 모두 만성질환으로서 노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으며 또한 적지 않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 원인 및 배경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어 환자가 병원을 찾는데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고 또 병원도 노인환자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이 전국민 皆保險으로 되어 있어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는데 결정적인 어려움은 비교적 적으나, 수입이 없는 노인으로서 그 진료비가 크게 부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노인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병원이나 종합수련병원에서 노인진료를 위한 시설과 인력투자에 있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 노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몇몇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경우를 보면 비노인의 진료보다 노인환자의 진료시에 병원의 수입이 감소되어(노인 질병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일본등의 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임) 병원에서 노인진료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또한 노인병 관련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는 외국에서와 같이 노인 의학과가 하나의 진료 과목(전문의 과목)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독자적으로 전문인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유능하고 훌륭한 의사가 노인환자를 진단하여 좋은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하여 노인의료에 큰 진전이 있고, 노후의 외롭고 병약한 노인들에게 크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일본의 복지예산, 전체의 33.8%로 우리나라 3배가 넘어 전체 노인인구의 약 0.3%만 노인복지시설서 보호

로 보답하는 사회였다. 그러나 근래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젊은이가 모두 대도시로 몰리고, 젊은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들의 부모는 自意거나 他意에 의해 젊은이와 한집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졌고 따라서 자녀들로부터 보살핌을 받기에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그러므로 노인들은 그들의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점차 소외되어 가고 있으며,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다수의 노인들은 그대로 질병을 안고 함께 늙어가고 있다.

있어서는 핵가족이 훨씬 深化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38.2%가 자녀들과 분리되어 살고 있다. 노인 부부만이 사는 경우가 노인인구의 23.8%, 노인 1인 단독 가구가 13.9%나 된다.

노인들이 그들의 장례를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는 노인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 지난 日帝시대, 해방 후 혼란기, 6.25전쟁 및 그 후 격변기를 사는 동안 쪼들게 가난했던 그 시절을 잘 참고 견디었고, 그 후 1970년

나, 1994년에는 노후준비를 전혀 안하고 있는 이가 47%로 줄었고, 예금, 보험, 연금 등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사람이 49.9%로 6년 사이에 노년기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약 2배로 늘어났다.

1995년 현재 55세 이상의 고령 취업자가 309만명으로서 전체 취업자의 15.1%를 점유하는데 고령자의 수가 늘어날 수록 그 취업희망자도 늘어날 것인데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들이 일자리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국가에서 이들에게 적당한 일자리

- ① 노년 인구의 급격한 증가
- ②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 그리고 노인세대의 분리
- ③ 출생력의 저하로 인한 전통적 노인부양 구조의 붕괴
- ④ 전후 출생한 젊은 세대의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 ⑤ 물질적 풍요와 지나친 경쟁만을 경험한 젊은 세대와 근검약약을 미덕으로만 알고 지내온 노인세대와의 정신적 문화적 갈등
- ⑥ 현대 경쟁사회에서 他意에 의해 달라진 停年과 이에 따른 역할 상실과 경제적 곤란